

이코노 & 비즈 피플

광주시건축사회 정 명 철 회장

“건축 인·허가 매뉴얼 만들어 소통”

동별 소그룹 활동으로 정보 공유  
다수 회원들 의견 경청에 주력

시민들에 건축사 역할 등 홍보  
지역대학과 맞춤형 인턴십 추진



“광주시는 물론 5개 구청과 공동으로 건축 인·허가 매뉴얼을 만들어 행정기관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광주시는 물론 5개 구청과 공동으로 건축 인·허가 매뉴얼을 만들어 행정기관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광주시는 물론 5개 구청과 공동으로 건축 인·허가 매뉴얼을 만들어 행정기관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광주시는 물론 5개 구청과 공동으로 건축 인·허가 매뉴얼을 만들어 행정기관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광주시는 물론 5개 구청과 공동으로 건축 인·허가 매뉴얼을 만들어 행정기관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광주시는 물론 5개 구청과 공동으로 건축 인·허가 매뉴얼을 만들어 행정기관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광주시는 물론 5개 구청과 공동으로 건축 인·허가 매뉴얼을 만들어 행정기관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광주시는 물론 5개 구청과 공동으로 건축 인·허가 매뉴얼을 만들어 행정기관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가계부채 급증에도 LTV·DTI 손넛 계획 없다”

〈주택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 밝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당장 바꾸거나 손넛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금융개혁 차원에서는 금융사 검사 과정에서 개인에게 확인서, 문답서를 요구하는 관행을 없애고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로 짜여진 거래소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은 17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LTV·DTI 규제가 작년 8월 완화돼 좀더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이후 작년에만 100만채가 넘는 주택 거래가 이뤄졌고 이자부담 경감, 금리가 싹 1금융권으로 옮겨타기 등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임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가계부

채관리협의를 하는데 동의했고 정책이 필요하다면 여기서 공조하여 추진하겠다”며 “가계부채 문제는 좀더 미시적이고 부분적인 해법을 찾아가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 “그러나 정부가 금융사의 손실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며 “금융사 스스로 대출심사능력을 키우도록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해선 “신속히 계속 추진하겠지만 시한을 설정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매각 원칙으로는 매각방안을 공론화할 수 있도록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요청, 현재 주가가 9천원대인 우리은행의 가치 제고, 다양한 매수수요를 파악해 방안을 모색 등 3가지를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금융개혁 방향 및 추진전략”도 설명했다. 그는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맞춰 ‘경제활성화를 위한 금융개혁’ 3대 전략, 6개 핵심과제, 18개 세부과제를 마련해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

혔다.

금융위는 우선 개인에 대한 확인서, 문답서 징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검사방식을 컨설팅 위주로 전환하기로 했다. 개인제재는 기관·금전제재 중심으로 바꾸고 제재받은 기관에 과도하게 신규 업무를 금지하는 것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을 순회하며 예로, 규제, 관행, 발굴·해소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수수료·금리·배당은 자율성 원칙아래 금융사가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사모펀드의 설립·운용·판매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모험자본 투자에 대한 불합리한 위험가중치 조정 등의 제약요인을 완화할 예정이다. 상장(공급)과 투자자(수요)와 관련한 코넥스 운영방식도 전면 개편된다. 시장에서는 현재 3억 원인 코넥스시장의 개인투자자 예약금 한도가 1억 원 수준으로 내려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중 유통 화폐 사상 첫 80조 넘었다

5만원권 비중 70% ... 증가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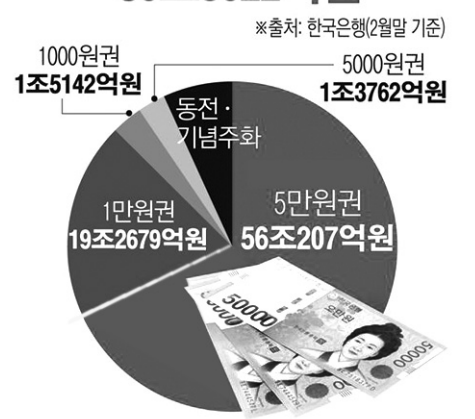
5만원권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시중 유통 화폐가 사상 처음 80조원을 넘어섰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월말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화폐는 80조3811억원(7년주화 1211억 원 제외)으로 1년 전보다 14조3367억원(21.7%)이나 증가했다. 무엇보다 현 정부가 들어 빠르게 늘고 있는 5만원권이 시중 유통 화폐 증가량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 2월말 현재 시중 유통 5만원권은 56조207억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13조911억원(30.2%)이나 늘었다. 저가경제 양성화에 강한 의지를 보인 현 정부가 2013년 출범하면서 한은에서 공급되는 5만원권은 한층 더 빠르게 늘고 한은 금고로 되돌아오는 물량은 상대적으로 줄면서 증가 속도가 빨라졌다.

이에 따라 시중 유통 화폐액 중 5만원권의 비중도 지난 2월말 현재 69.7%에 달했다. 2009년 6월 23일 처음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한 5만원권의 발행잔액 비중은 2010년 2월(월말 기준) 30.6%, 2011년 8월 50.5%, 2012년 11월 60.1% 등으로 높아졌다.

시중 유통 화폐 80조5022억원



이러 올해 1월 70.5%까지 상승하고서 설 연휴가 낀 2월에는 세뱃돈 용으로 수요가 큰 1만원권이 대량 공급된 영향으로 일시 주춤하기도 했다.

지폐 가운데 1만원권 유통물량은 19조2679억원으로 1년 전보다 6.0% 늘고 5000원권(1조3762억원)은 7.5%, 1000원권(1조5142억원)은 5.3% 각각 증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레드페이스, 워킹화 ‘퍼펙트 핏 시스템’ 시리즈 출시

발 피로도 줄여주고 쾌적성 제공

정통 아웃도어 브랜드 레드페이스(대표 유영선)가 최근 새로운 워킹화 ‘퍼펙트 핏 시스템’(PFS-Perfect Fit System) 시리즈를 출시했다.

레드페이스의 신제품은 49년 동안 축적된 레드페이스의 신발 제조 기술과 생체역학 원리를 적용했다. 신발을 울퉁불퉁한 인체의 발 모양이 굴곡된 정도에 정확하게 일치시킨 ‘퍼펙트 핏 시스템’은 발과 완벽한 일체감을 구현하는 ‘굴곡형 라스트’와 지지력을 향상시켜주는 ‘아치 서포트와 힐링’이 적용됐다.

발의 피로도를 줄여주고 쾌적성과 쿠셔닝을 제공하는 게 특징. 특히 발과 신발 사이의 공간이 밀착

돼 오랜 시간을 신어도 맨발로 다니는듯한 편안한 착화감을 제공한다.

이용준 레드페이스 상품개발팀 차장은 “새상품인 ‘콘트라 PFS 씨미트 워킹화’와 ‘PFS 플렉스 워킹화’는 ‘신발을 신는 순간부터가 아웃도어다’라는 생각에서 시작했다”며 “도시와 거친 아웃도어 환경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경량성과 안정감을 확보한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PFS 워킹화’ 라인을 더욱 다양화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레드페이스는 지난 16일 본사 1층에 위치한 역사 본점에서 신제품 포토행사를 진행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Business & Career Introduction' (개업·성업 안내) featuring various local business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